

사회

광주·전남 경계 25개 마을 가보니...

도로 단절·상수도 없고 시내버스 타려면 1시간

광주시, 생활환경 개선 대책 본격 추진

광주시 남구 대촌동 양촌마을과 나주 산포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산포면에서는 2차선 도로이지만, 양촌마을로 진입하면서 차선이 없어진다. 광산구 요기동 삼정마을 역시 나주시 노안면 쪽과는 달리 도로 폭이 좁고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시가 이처럼 시 경계로 접어들면서 도로가 좁아지거나, 도시기반시설 또는 행정서비스가 취약해 불편을 겪었던 시·도 경계지역 자연마을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곽지역의 주민들이 도시 주민들에 비해 광역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자치구와 함께 세부계획을 수립해 매년 예산을 반영,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지 25개 실시한 '접경지역 자연마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시·군의 자연마을은 농촌진흥지역으로 분류돼 농로 포장, 마을 길 조성, 중수해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는 반면 경계지역에서 광주로 편입된 자연 마을들은 지원과 혜택에서 제외돼 마을 진입도로, 하천 정비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북구 월출동 치촌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장성군 남면의 용수로는 정비된 반면, 치촌마을 쪽은 전담지역 자연마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마을은 시내버스를 타려면 1시간 이상 걸어야 하며,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사 용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았다.

또 이들 마을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 외형상의 재산은 늘어났으나 토지가 매매용이 아닌 생업을 위한 경작용이어서 실질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부담만 늘어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마을 간 연결도로 확·포장, 소화 천 연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로당 설치를 비롯한 마을 속원 사업 등은 연차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수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그 동안 도심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시 외곽지역은 행정의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 실과는 물론 해당 자치구와 협의 통해 서둘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25개 마을 대부분이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 쇄도

광주, 제도 시행 20일만에 122건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노역장에서 일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게 한 제도가 시행 초반부터 신청이 쇄도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할소(소장 상우제)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 시행 이후 광주

지역 처음으로 사회봉사자 30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날부터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에서는 담양군 금성면의 해림복지관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11곳에 사회봉사자들이 투입된다. 이들은 주로 복지시설의 환경정리와 목욕도우

미, 장애인 재활작업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26일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에선 벌금 미납자 122명이 법원의 사회봉사 허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회봉사 개시 신고를 마쳤다. 이날 현재 전국의 사회봉사 허가자는 2천218명에 이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회원들이 17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 매점 51곳에 대한 식품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보건·교육당국의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교 매점, 금지 식품 버젓이 판매

참교육학부모회 조사

광주지역 고등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상당수 식품이 고열량·저영양으로 판매금지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가 지난 9월11일부터 10월 말까지 광주 지역 고교 51개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료수 61개 상품 중 32개(52.5%)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판매금지 식품이었다. 또 아이스크림 34개 상품 11개(32.4%)가, 사탕·초콜릿 36개 상품 중 3개(8.3%)도 각각 판매 금지 식품이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많은 컵

라면을 전체의 33%인 17곳에서 여전히 판매하고 있었으며, 커피자판기를 설치한 학교 매점은 전체의 64.7%인 33곳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즉 학내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해 학교 매점 운영자의 4분의 1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해 홍보나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쌀시위 농민에 덕돌린 경찰

상경시위 제지 대신 간식 주며 배웅

소주 등은 수거... “준법집회 해 달라”

상경 집회에 나선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과거 주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진입을 원천봉쇄하던 경찰로부터 되레 따뜻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산경찰은 이날 광산구 분림농협 앞길에서 광주시 농민회 등 농민 10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떡과 음료수를 제공했다.

영광·보성·고흥·장흥경찰 등 8개 경찰서도 이날 각 지역별로 농민들에게 음료수 34상자와 빵·떡 등 12상자

를 건넸다.

경찰은 먹을거리를 제공한 대신 농민들로부터 소주·맥주 등 26상자를 수거했다. 수거한 물품은 시위가 끝난 후 농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줄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물품을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준법집회를 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시·군 주요 관문마다 경찰관을 배치해 농민이 탄 버스와 트럭 등을 강제로 돌려보내고 농민은 이에 반발해 경찰서에 나락을 뿌리는 등 상경집회 때마다 양측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농민 2천300명은 각 지역별로 관공버스 96대에 나눠 탄 뒤 집회 장소인 서울로 향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대응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매년 이맘때면 농민 상경시위를 막느라 파 감치가 됐는데, 이번 농민대회를 계기로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3개 농민단체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농민 1만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대란 해결, 협동조합 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억대 보조금 가로채고 비자금 빼돌리고

영암산림조합장 등 6명 적발·공무원도 구속

조합의 각종 사업과정에서 수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고 거액의 비자금까지 빼돌린 산림조합 관계자들과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불량’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17일 거액의 보조금과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영암군 산림조합 김모(72) 조합장과 문모(53) 과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

(52) 상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1년간 이종계약서를 만들어 장뇌삼 구매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5천만원의 국가 및 군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나무나 산삼 납품업자와 짜고 수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2억6천만원을

조합장 활동비와 시간의 근무수당, 유희비, 공무원 뇌물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산림조합과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 3천만원과 승용차, 소나무 등 4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암군 공무원 박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2천 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A(53)씨를 기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956) 김장동



10대들 새벽 주유소 습격

17일 새벽 3시50분경 광주시 북구 각화동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 마스크를 쓴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침입,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키 175cm에 평범한 체격으로 검은색 계통의 모자를 쓴 용의자를 쫓는 한편,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범서방파 두목 김태춘씨 만기 출소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춘(60)씨가 17일 징역 1년의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0시 직후에 부산교도소를 나와 미리 준비된 엠블런스를 타고 상경.

○김씨는 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01년 4월부터 1년여간 교도소 보안과장에게 전화 사용과 흡연 등의 권리를 제공받는 대가로 2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년이 확정.

○김씨는 구속 후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 등으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여러차례 연장해 3년만에 형기를 마쳤다고.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Nawonchim' (나원침)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promoting the product. The text includes '상급의 화성으로 큰 눈썹이 돋아나는 시골' and '국립약정'.